

# 2021년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평가와 2022년 전망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 ■ 머리말

2021년 3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2021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예상목표치로 경제성장률 6% 이상,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연중 5.5% 이내 등을 제시했다. 2022년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114조 3,670억 위안(17조 7천억 달러)으로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규모(15조 7,300억 달러)를 앞질러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는 1,269만 명,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연중 평균 5.1%로 2021년 초에 제시했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 닝지저(宁吉喆) 국장은 2021년 국민경제운행상황 언론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으로 정부 일자리 업무목표는 원활하게 달성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경제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었다. 둘째, 일자리 최우선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졸자, 농민공 등 핵심계층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셋째,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출현하면서 대량의 노동력을 흡수했다. 넷째, 서비스업, 제조업, 건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노동수요가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 교통운수창고 및 우정업, 주민서비스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증

가했다. 다섯째, 농민공이 귀향하고 도시지역 경제활동인구가 진학, 가사, 건강 등의 원인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등 일부 인원이 일시적으로 도시지역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것이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에 반영됐다.<sup>1)</sup>

이 글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고용노동 관련 통계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2022년 중국사회형세 분석 및 예측」, 「2022년 중국경제형세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2021년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2022년에 대해 간단하게 전망하고자 한다.

## ■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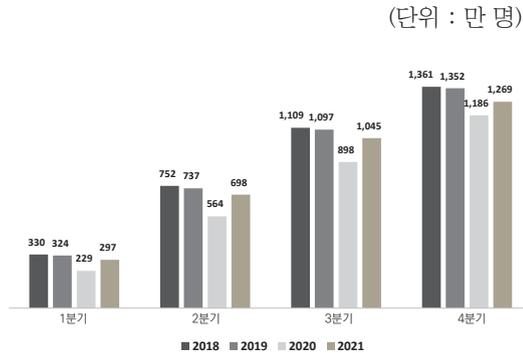
2021년 중국 노동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지속, 국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홍수와 지진 등 2021년 유난히 많았던 자연재해 등의 영향이 중첩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전년동기대비 7.0% 증가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는 1,269만 명으로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하면 83만 명 증가했다. [그림 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는 1,269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7년 연속 유지해 왔던 1,300만 명 이상 수준까지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1) 国家统计局(2022), 「国家统计局局长就2021年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22.2.20).

[그림 1]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그림 2] 중국 도시지역 취업자 수 변화 추이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22), 「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각 연도), <http://www.mohrss.gov.cn> (검색일 : 202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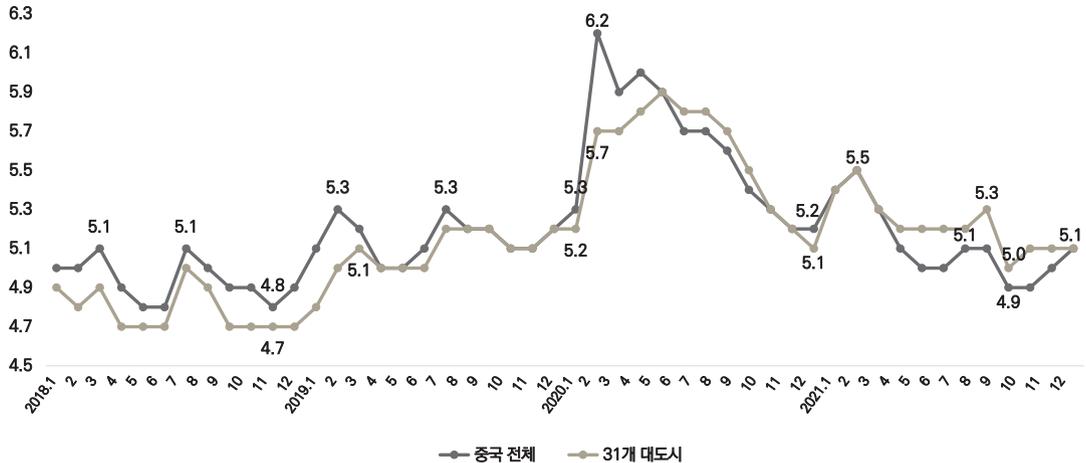
##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5.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이후 악화되었던 실업률이 빠르게 회복되었다. 2022년 1월 18일 국가통계국 인구와 취업통계사(人口和就业统计司)<sup>2)</sup> 왕핑핑(王萍萍) 사장(司长)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5.1%로 연초 정부목표치였던 5.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sup>3)</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4분기 춘절 요인과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해 조사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2월에는 연중 최고치인 5.5%까지 상승했다. 춘절 이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실물경제가 꿈틀대면서 실업률 회복의 폭이 점차적으로 커졌다. 2/4분기 월별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5.0%에서 5.1% 사이를 유지했고, 3/4분기에는 졸업생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실업률이 다소 상승했지만,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9월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다시 4.9%까지 하락했고, 4/4분기 조사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9%에서 5.1% 사이를 유지했다(그림 3 참조).

2) 사(司)는 우리나라의 국(局)에 해당한다.

3) 国家统计局(2022), 「王萍萍:2021年就业形势总体稳定」, <http://www.stats.gov.cn> (검색일 : 2022.2.20).

[그림 3] 중국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변화 추이(2018~2021년)



주: 31개 대도시란 중국의 직할시, 성급행정단위인 성(省) 정부 및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를 말함.  
 자료: 国家统计局(2022), 「城镇调查失业率」, <https://data.stats.gov.cn> (검색일: 202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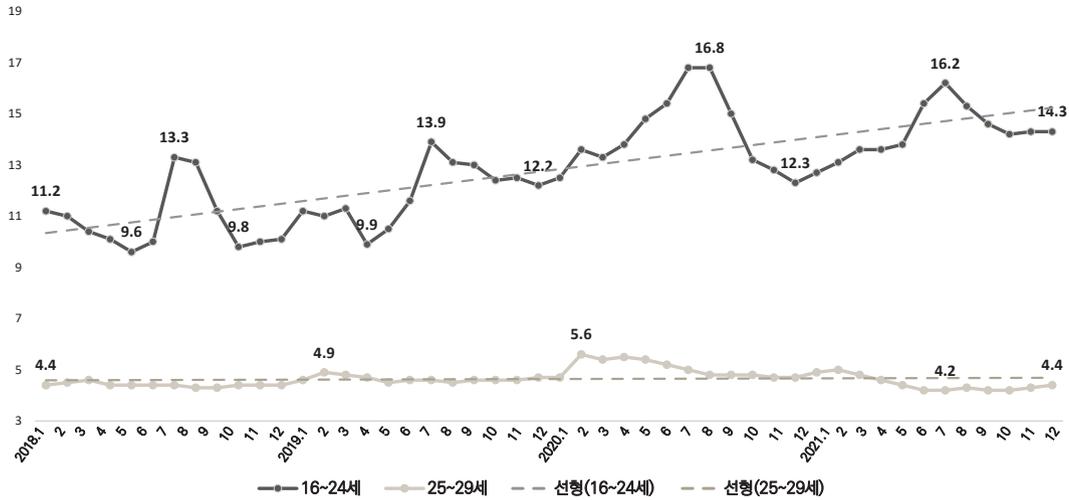
한편 2021년 3/4분기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3.9%로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했다.

### 농민공, 대졸자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 규모 회복

핵심 계층의 고용상황이 양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졸자의 고용현황은 안정을 되찾았고, 청년실업률은 감소했다.<sup>4)</sup>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상승했던 16~24세의 청년실업률이 2021년 7월 16.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2월 말에는 14.3%까지 하락하여 고점 대비 1.9%p 감소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등락폭이 크고 전체 실업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실업률은 2018년 1월 이후 10% 내외를 유지한 반면 25~59세 실업률은 4~6%를 유지했다. 즉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이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인해 청년과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 격차가 갈수록 확대

4) 2022년 중국 대졸자 예상 규모는 1,076만 명으로 2021년보다 167만 명 증가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중국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201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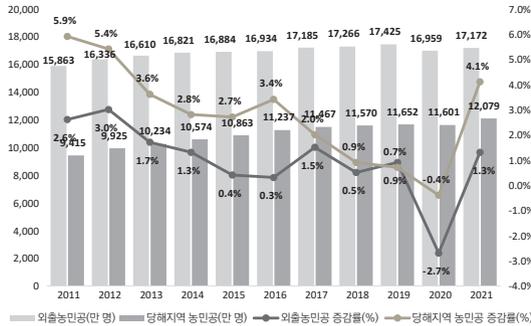
자료: 都阳(2021), 「年中国就业优先战略应充分考虑青年就业问题」, 『2022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p.362.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지만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은 신속하게 회복되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반면,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었던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25~59세의 실업률은 평균 5.3%였고,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평균 13.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완화되면서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25~59세의 실업률은 평균 4.7%까지 감소하여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충격을 미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7%에 근접했다. 하지만 16~24세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여전히 13.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19년 같은 기간의 10.8%보다 확연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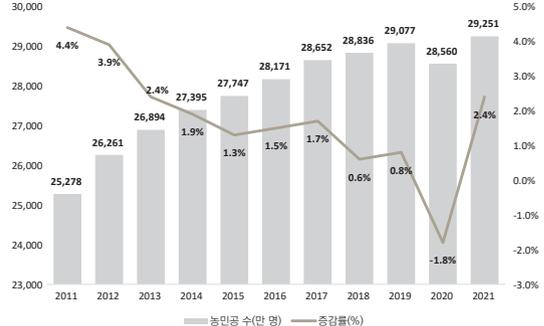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말 농민공 수는 2억 9,251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91만 명(증가율 2.4%) 증가했고,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74만 명(증가율 0.6%)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21년 전체

5) 都阳(2021), 「年中国就业优先战略应充分考虑青年就业问题」, 『2022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pp.361~362.

[그림 5] 전체 농민공 규모 및 증감률



[그림 6] 유형별 농민공 규모 및 증감률



자료: 2011~2020년 통계는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각 연도), <http://www.mohrss.gov.cn> (검색일: 2022.2.20). 2021년 통계는 国家统计局(2022), 「2021年国民经济持续恢复 发展预期目标较好完成」,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2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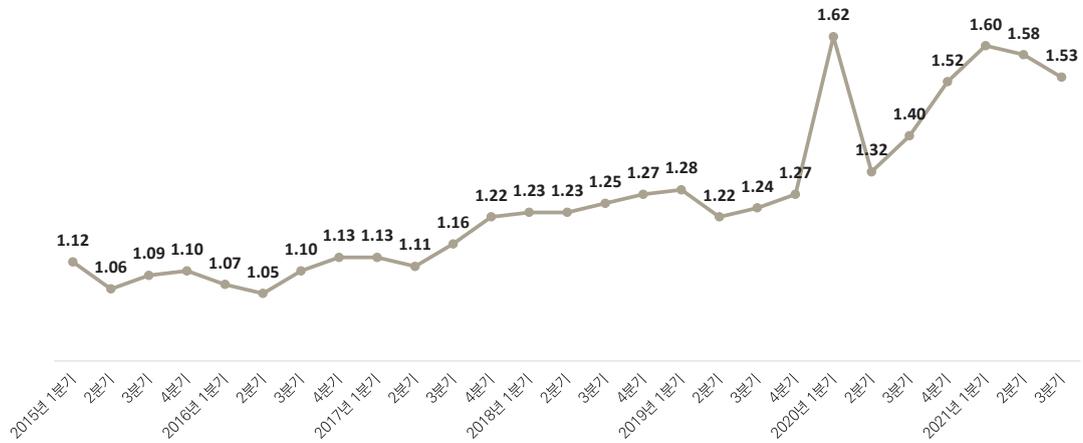
농민공 2억 9,251만 명 중 당해지역 농민공 수는 1억 2,079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했고, 외출 농민공 수는 1억 7,172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2021년 외출농민공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4.6%로 전국 평균수준인 5.1%와 비교하면 0.5%p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노동수요 증가, 구인배율 증가

노동시장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기업의 노동수요가 안정을 유지했다. 중국 인력자원 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监测中心)의 「2021년 3/4분기 중국 80개 도시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시장 공급 현황 분석」에 의하면,<sup>6)</sup> 중국 경제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3/4분기 중국 인력자원시장 노동수급의 계절적 특성이 확연해졌고, 노동수급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고, 구인배율은 전년 동기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전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

6)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22), 「2021年第三季度百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报告」, <http://chinajob.mohrss.gov.cn> (검색일: 2022.2.20).

[그림 기 각 연도 분기별 구인배율 변화 추이(2015~2021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22), 「百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报告」, <http://www.mohrss.gov.cn> (검색일: 2022.2.20).

년 3/4분기 기업이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채용한 인원은 402.4만 명이고, 구직자 수는 263.5만 명으로 구직배율은 전년동기대비 0.13 증가한 1.53을 기록했으며, 전분기대비 0.05 감소했다. 구인배율 변화 추세를 보면, 2017년 4/4분기 이래 1.2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0년 1/4분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구직자 수가 감소하여 구인배율은 1.62까지 상승했고, 2021년 2/4분기 이후 구인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지역의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구인배율은 각각 1.47, 1.43, 1.76으로 전년동기대비 동부지역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은 각각 36.6만 명(16.1%), 37.9만 명(22.7%)씩 감소했고, 중부지역은 각각 2.5만 명(2.6%), 2.8만 명(4.2%)씩 감소한 반면, 서부지역은 각각 21.1만 명(24.5%), 0.2만 명(0.3%)씩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87.5%의 노동수요가 제조업(38.7%), 도소매업(9.7%), 주민서비스수리 및 기타서비스업(9.2%), 숙박요식업(8.1%), 건축업(5.4%),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4.8%),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4.6%), 교통운수창고 및 우정업(3.9%), 부동산업(3.1%)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년동기대비 2차 산업 중 광업(▽38.8%) 이외에 전력열에너지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13.8%), 건축업(1.1%), 제조업(0.5%) 등의 노동수요는 증가했

고, 3차 산업 중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22.5%), 문화체육 및 레저업(15.6%),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6.3%)의 노동수요는 다소 증가했지만 나머지 업종의 노동수요는 감소했는데, 도소매업(▽23.6%), 금융업(▽18.0%), 교통운수창고 및 우정업(▽13.9%),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13.0%), 부동산업(▽12.0%), 주민서비스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11.8%) 등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기능 및 기술수준에서 보면, 기술등급과 전문기술직함을 보유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비교적 컸고, 일선 노동자의 구인난이 비교적 심각했다. 전년동기대비 고급기사, 기사, 고급기능인력의 노동수요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39.1%의 노동수요는 기술등급 또는 직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 중 기술등급에 대한 요구는 25.5%, 직함에 대한 요구는 13.6%를 차지했다. 그리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41.8%의 구직자가 일정한 기술등급 및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기술등급이 27.2%, 직함이 14.6%를 차지했다. 노동수급 대비에서 보면, 각 기술등급의 구인배율은 모두 1보다 높았고, 이 중 고급기사, 기사, 고급기능인력의 구인배율이 각각 3.05, 2.7, 2.51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고급기사(28.8%), 기사(5.9%), 고급기능인력(7.0%)의 노동수요 증가폭이 비교적 큰 반면, 초, 중, 고급 직함의 노동수요는 각각 16.7%, 9.7%, 43.8%씩 감소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고급기사(2.3%)가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각 등급과 직함의 노동공급은 다소 감소했으며, 이 중 기사, 고급기능인력과 초급, 중급, 고급직함을 가진 인력의 노동공급은 각각 31.6%, 19.9%, 15.9%, 18.0%, 6.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 증가, 11개 성급행정단위 최저임금 기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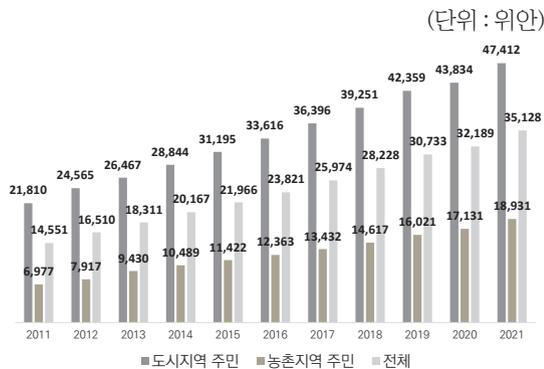
임금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국가통계국의 관련 통계에 의하면,<sup>7)</sup> 2021년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 5,128위안(약 665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8.1%로 1인당 GDP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민 1

7) 国家统计局(2022), 「方晓丹:居民收入继续稳步增长 居民消费支出持续恢复」,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22.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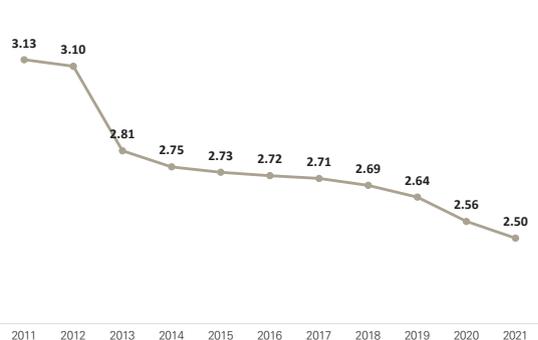
인당 가처분소득은 2021년 기저효과 속에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2년 평균 명목증가율은 6.9%이고, 실질증가율은 5.1%를 기록했다. 농촌주민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8,931위안(약 357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9.7%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7,412위안(약 896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7.1%로 나타났다. 즉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명목증가율과 실질증가율이 도시주민보다 각각 2.3%p,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와 농민주민 간 소득비는 2020년의 2.56에서 2.50으로 감소했으며, 도시와 농촌주민 소득의 상대적인 격차는 더욱더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지역 주민소득의 증가율이 기타 지역보다 빨랐다. 서부지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해 동부, 중부, 동북지역보다 각각 0.3%p, 0.2%p, 1.4%p 높았고, 서부지역과 기타지역 주민 소득의 상대적인 격차는 더욱더 축소되었다.

2021년 11개 성급행정단위(성, 자치구, 특별시)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고, 이 중, 북경시는 월 2,200위안에서 2,320위안, 상해시는 월 2,480위안에서 2,590위안, 절강성은 월 2,010위안에서 2,280위안, 강소성은 월 2,020위안에서 2,280위안, 섬서성은 월 1,800위안에서 1,950위안, 흑룡강성은 월 1,680위안에서 1,860위안, 강서성은 월 1,680위안에서

[그림 8]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그림 9] 도농지역 주민 소득비



자료 : 2011~2020년 통계는 国家统计局,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각 연도), <http://www.stats.gov.cn> (검색일 : 2022.2.20). 2021년 통계는 国家统计局(2022), 「2021年国民经济持续恢复发展预期目标较好完成」, <http://www.stats.gov.cn> (검색일 : 2022.2.20).

<표 1> 성급행정단위 최저임금 기준(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월 최저임금 기준(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위안)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북경시	2,320	-	-	-	25.3	-	-	-
천진시	2,180	-	-	-	22.6	-	-	-
하북성	1,900	1,790	1,680	1,580	19	18	17	16
산서성	1,880	1,760	1,630	-	19.8	18.5	17.2	-
내몽고자치구	1,980	1,910	1,850	-	20.8	20.1	19.5	-
요녕성	1,910	1,710	1,580	1,420	19.2	17.2	15.9	14.3
길림성	1,880	1,760	1,640	1,540	19	18	17	16
흑룡강성	1,860	1,610	1,450	-	18	14	13	-
상해시	2,590	-	-	-	23	-	-	-
강소성	2,280	2,070	1,840	-	22	20	18	-
절강성	2,280	2,070	1,840	-	22	20	18	-
안휘성	1,650	1,500	1,430	1,340	20	18	17	16
복건성	1,800	1,720	1,570	1,420	18.5	18	16.5	15
강서성	1,850	1,730	1,610	-	18.5	17.3	16.1	-
산둥성	2,100	1,900	1,700	-	21	19	17	-
하남성	2,000	1,800	1,600	-	19.6	17.6	15.6	-
호북성	2,010	1,800	1,650	1,520	19.5	18	16.5	15
호남성	1,700	1,540	1,380	1,220	17	15	13.5	12.5
광둥성	2,300	1,900	1,720	1,620	22.2	18.1	17	16.1
(십천시)	(2,360)	-	-	-	22.2	-	-	-
광서장족자치구	1,810	1,580	1,430	-	17.5	15.3	14	-
청해성	1,830	1,730	1,680	-	16.3	15.4	14.9	-
중경시	1,800	1,700	-	-	18	17	-	-
사천성	1,780	1,650	1,550	-	18.7	17.4	16.3	-
귀주성	1,790	1,670	1,570	-	18.6	17.5	16.5	-
운남성	1,670	1,500	1,350	-	15	14	13	-
서장자치구	1,850	-	-	-	18	-	-	-
섬서성	1,950	1,850	1,750	-	19	18	17	-
감숙성	1,820	1,770	1,720	1,670	19	18.4	17.9	17.4
청해성	1,700	-	-	-	15.2	-	-	-
영하회족자치구	1,950	1,840	1,750	-	18	17	16	-
신장위구르자치구	1,900	1,700	1,620	1,540	19	17	16.2	15.4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22), 「全国各地区最低工资标准情况(截至2022年1月1日)」, <http://www.mohrss.gov.cn> (검색일: 2022.2.21).

1,850위안, 천진시는 월 2,050위안에서 2,180위안, 영하회족자치구는 월 1,660위안에서 1,950위안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중국에서 월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해시로 2,590위안이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경시로 25.3위안이다.

한편 2021년 농민공의 월 평균임금액은 4,432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했고,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5.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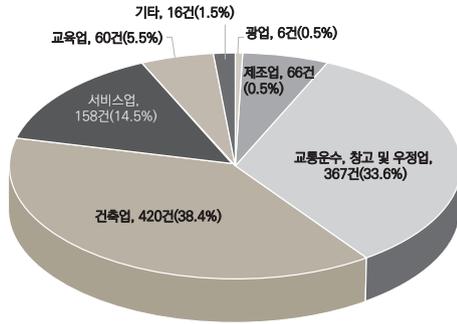
### 파업 등 단체행동 증가, 서비스업 증가, 정부개입 증가

중국노동통신의 노동자 단체행동 지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동자 단체행동은 2020년보다 200여 건 증가한 1,093건으로 나타났다.<sup>8)</sup> 업종별로 보면 건축업이 420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주택건설과 복합쇼핑몰 건설현장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노동자 단체행동이 각각 118건, 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sup>9)</sup> 2021년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회사인恒大그룹(恒大集团)이 협력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주택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노동통신이 2021년 한 해 동안 수집, 분석한 1,093건의 노동자 단체행동 중恒大그룹의 파산 위기와 관련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발생한 노동자 단체행동은 11건으로 나타났고,恒大그룹과 관련한 단체행동은 주로 호남성, 호북성, 광서성 및 운남성 등 내륙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노동자들은 회사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며 심지어 정부가 긴급 수혈한 공적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서 교통운수창고 및 우정업에서 367건(33.6%), 서비스업에서 158건(14.5%), 제조업에서 66건(6.0%), 교육업에서 60건(5.5%)의 단체행동이 발생했다. 2021년 노동자 단체행동의 폭발점은 교통운수업이었다. 이 중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간 배달시장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쩐의 전쟁”으로 변모하면서 배달료 인하, 심지어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배달원의 운행중단, 파업 등 단체행동이 배달대행업에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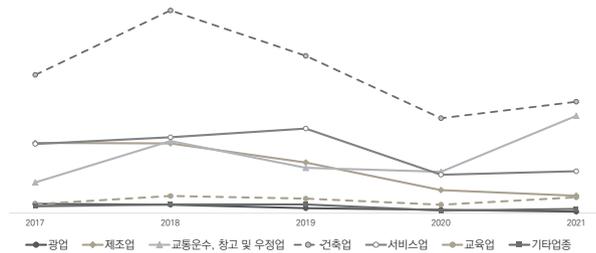
8) 자세한 내용은 중국노동통신 노동자 단체행동 지도(工人集体行动地图) 참조. [https://maps.clb.org.hk/?map=1&i18n\\_language=zh\\_CN](https://maps.clb.org.hk/?map=1&i18n_language=zh_CN) (검색일: 2022.2.20).

9) 이하 내용은 다음 자료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 中国劳工通讯(2022), 「工人集体行动逾千, 城市物流、服务业抗议成焦点」, 1月 21日, <https://clb.org.hk/zh-hans> (검색일: 2022.2.20).

[그림 10] 업종별 단체행동 발생 현황(2021년)



[그림 11] 업종별 단체행동 발생 건수 변화 추이 (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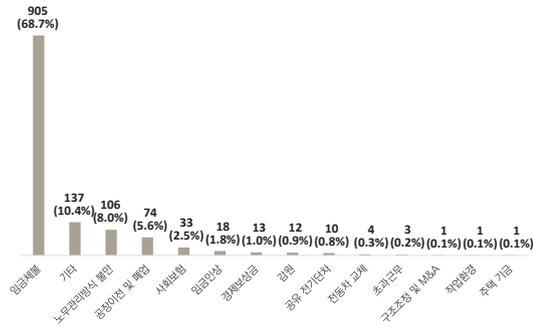


자료: 중국노동통신 노동자 단체행동 지도(工人集体行动地图), [https://maps.clb.org.hk/?map=1&i18n\\_language=zh\\_CN](https://maps.clb.org.hk/?map=1&i18n_language=zh_CN) (검색일: 202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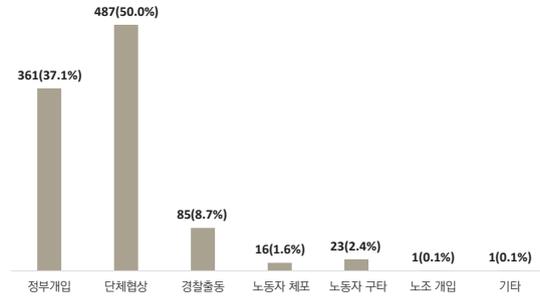
면적으로 폭발했다. 2021년 발생한 1,093건의 노동자 단체행동 중 배달대행업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은 189건이었다. 과거 노동자 단체행동이 가장 빈번했던 제조업에서는 66건의 단체행동이 발생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과거 제조업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은 주로 외자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동종업계 간 치열한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등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소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성이 108건(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광둥성(92건, 8.4%), 산둥성(81건, 7.4%), 강소성(80건, 7.3%), 섬서성(78건, 7.1%), 호남성(51건, 4.7%), 절강성(48건, 4.4%), 사천성(43건, 3.9%), 호북성(41건, 3.8%), 복건성(39건, 3.6%), 하북성(38건, 3.5%) 등 순으로 중국 전역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유형별로 보면, 민영기업이 825건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고, 국유기업(134건, 12.3%), 중외합자기업(30건, 2.7%), 비영리단체(20건, 1.8%), 외자기업(6건, 0.5%), 홍콩·마카오·대만기업(3건, 0.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행동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905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노무관리방식 불만(106건, 8.0%), 공장이전 및 폐업(74건, 5.6%), 사회보험(33건, 2.5%), 임금인상(18건, 1.4%), 경제보상금(13건, 1.0%), 정리해고(12건, 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전체의 75.5%에 해당하는 825건의 노동자 단체행동은 100명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마

[그림 12] 단체행동 발생원인(2021년)



[그림 13] 단체행동 해결방식(2021년)



자료: 중국노동통신 노동자 단체행동 지도(工人集体行动地图), [https://maps.clb.org.hk/?map=1&i18n\\_language=zh\\_CN](https://maps.clb.org.hk/?map=1&i18n_language=zh_CN) (검색일: 2022.2.20).

지막으로 정부의 대응방식에서 보면, 단체협상을 통한 해결이 48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가 노사분쟁에 개입하여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한 정부개입(361건, 37.1%), 경찰출동(85건, 8.7%), 폭력진압(24건, 2.4%), 체포(16건, 1.6%), 노조개입(1건, 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노동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행동의 무게 중심이 과거 제조업에서 플랫폼 경제, 인터넷 산업, 교육업, 부동산업 등으로 이동하면서 단체행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정부가 개입하거나 단체협상으로 해결된 사건은 593건으로 다소 증가하여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경찰이 개입한 사건은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85건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노동자 단체행동에 대한 이러한 정부방식의 변화는 정부의 플랫폼 경제, 인터넷 산업, 교육업, 부동산업의 규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부문이 단체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공회가 개입하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맺음말 : 2022년 전망

2021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정상을 회복하면서 노동시장 회복이 동반되었다. 정상궤도를 벗어났던 일자리 창출,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도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았고,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았던 청년, 농민공 등 핵심계층의 고용률도 서서히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고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했던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 수 1천만 명은 10월에 조기 달성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83만 명(감소율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일부 지역의 고용상황은 회복이 더뎠다. 조사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지원 압박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특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세가 둔화되고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등 업종의 회복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매관리지수(PMI)를 구성하는 다섯 개 지표 중 하나인 고용지표는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도 낮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2021년 8월 47.0까지 하락했으며, 12월 말 현재 47.6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농민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2~3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졸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22년 졸업예정자는 2021년보다 176만 명 늘어난 1,076만 명인데 2021년에 취업에 실패한 취업준비생까지 더해지면서 대졸자 고용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인 5.3%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상존하고,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와恒大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중국 경제전망 불확실성에 따라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KLI**